

보도자료

THAI THEOUT!

보도시점 2023. 11. 13.(월) 10:00 배포 2023. 11. 13.(월) 10:00

#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

담당 부서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이희길 (051-850-3350)
		담당자	팀 장	심채연 (051-850-3360)
		담당자	주무관	정준호 (051-850-3363)





# 일 러 두 기

#### □ 분석 배경 및 목적

- 동남권 **청년 인구**의 수도권 등으로의 **유출 증가**
- 동남권에서는 인구 고령화 및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 발생
- 수도권에서는 인구 밀집으로 인해 경쟁 심화
- 동남권 청년의 이동 여부별(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vs. 지방에 남은 청년) 삶의 질을 비교하여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 □ 분석 대상

- 19~34세 청년 개인을 이동 경로(이전 거주지→현재 거주지)에 따른 4개 집단으로 분류
-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② 비수도권→수도권)과 지방에 남은 청년(① 비수도권 **→비수도권)**을 주요 비교 분석 대상으로 함

이전 거주지	현재 거주지		
이선 기구시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① 비수도권→비수도권	② 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	③ 수도권→비수도권	④ 수도권→수도권	

#### □ 분석 방법

- 이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
- 이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의 정의

자회	료별	이전 거주지	현재 거주지	
자료원	기준 시점			
청년 삶 실태조사	2022년 1월 1일 기준	졸업 고등학교 소재지(시·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총조사_표본(20%)	2020년 11월 1일 기준	출생지(시·도)	곳(시·도)	

# 일 러 두 기

#### - 권역 범위의 정의

- 관심 집단은 동남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동남권에 남은 청년이지만 조사 자료상 해당 집단의 표본 수가 적어 대표성의 문제 발생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집중 현상이 목격되어 권역의 범위를 동남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장하여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양분
- 이동 여부의 정의
- 이전 거주지의 권역이 현재 거주지의 권역과 다른 경우를 이동한 청년, 같은 경우를 이동하지 않은 청년으로 분류

#### □ 분석 내용 및 자료원

○ 이동 경로별로 분류한 청년 집단의 **삶의 질 6개 부문의 특성**을 **비교** 분석

부문	작성 항목	이용 자료	작성 연도
인구·사회	이동 경로별 분포, 혼인 상태, 최종 학력		
주거·교통	주거 점유 형태, 거주 주택 유형, 1인당 주거 면적, 주거 환경 만족도, 현재 거주 시·도 정주 의사, 통근 시간		
노동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의 장시간 근로 경험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2022년
소득·부채·재산	연간 총소득, 총부채, 금융재산		
신체적·정신적 웰빙	주관적 건강 평가, 번아웃(소진) 경험, 주관적 웰빙		
	향후 결혼 계획, 향후 자녀 출산 의향,		
가족 형성 	평균 초혼 연령, 출산 경험, 총 출생아 수, 첫째 자녀 출산 연령	통계청 「인구총조사_표본(20%)」	2020년

#### □ 이용 시 주의사항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목 차

□ 인포그래픽
□ 요약1
□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
I. 인구·사회
1. 이동 경로별 분포 4
2. 혼인 상태5
3. 최종 학력 6
ш. 주거·교통
1. 주거 점유 형태7
2. 거주 주택 유형8
3. 1인당 주거 면적9
4. 주거 환경 만족도10
5. 현재 거주 시·도 정주 의사·······11
6. 통근 시간 12

# 목 차

Ⅲ. 노동
1. 경제활동 상태 13
2. 취업자의 장시간 근로 경험14
Ⅳ. 소득·부채·재산
1. 연간 총소득 15
2. 총부채 16
3. 금융재산 17
V. 신체적·정신적 웰빙
1. 주관적 건강 평가18
2. 번아웃(소진) 경험19
3. 주관적 웰빙20
VI. 가족 형성
1. 향후 결혼 계획 21
2. 향후 자녀 출산 의향22
3. 평균 초혼 연령 23
4. 출산 경험24
5. 총 출생아 수 25
6. 첫째 자녀 출산 연령26

#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남은 청년의 「삶의 질」비교 🕝 हिम्राए हिमरे



수도권 ▶수도권 47.2%,

비수도권 ▶수도권 5.7%



## 비수도권 ▶비수도권 44.9%,

수도권 ▶비수도권 2.2%

		비수도권 ▶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비수도권 ▶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	차이 (떠난 - 남은)
<b>THE</b>	30~34세 미혼비율 ('22년)	남성 <b>64.3</b> %, 여성 <b>53.4</b> %	남성 58.9%, 여성 43.4%	남성 +5.4%p 여성 +10.0%p
인구 사회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 ('22년)	68.3%	59.9%	+8.4%p
	주거 점유 형태(1순위) ('22년)	보증금 있는 월세 41.0%	자가 61.0%	<b>a</b>
	거주 주택 유형(1순위) ('22년)	단독·연립·다세대주택 40.49	《 아파트 66.8%	8
주거 교통	<b>1인당 주거 면적</b> ('22년)	<b>32.4</b> m²	<b>36.2</b> m²	-3,8m²
т.	통근 시간 ('20년)	35.9분	25.3분	#10.6분
	취업자 비율 ('22년)	72.5%	66.4%	<b>u</b> +6.1%p
LE	<b>장시간 근로 경험</b> ('22년)	21.0%	12.7%	+8.3%p
	<b>연간 총소득</b> ('22년)	2,743만원	<b>2,034</b> 만원	+709만원
소득 부채	<b>총부채</b> ('22년)	2,642만원	909만원	<b>보</b> +1,733만원
재산	금융재산 ('22년)	1,565만원	1,271만원	+294만원
0	<b>주관적 건강 평가(나쁨)</b> ('22년)	10.9%	6.1%	#4.8%p
신체적	<b>번아웃 경험</b> ('22년)	42.0%	29.7%	+12,3%p
정신적 웰빙	<b>삶의 행복감</b> ('22년)	6.76점	6.92점	-0.16점
	<b>향후 결혼 계획</b> ('22년)	79.2%	76.0%	<b>U</b> +3.2%p
•	<b>향후 자녀 출산 의향</b> ('22년)	62.0%	66.2%	<b>-</b> 4.2%p
가족 형성	<b>평균 초혼 연령</b> ('20년)	27.5세	26.8세	+0.7세
00	평균 총 <b>출생아 수</b> ('20년)	0.84명	1.02명	

# då

###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요약)



# 1. 한눈에 보는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

#### □ 이동 경로별 분포

이전 거주지	현재 거주지		
이전 기구시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44.9%	5.7%	
수도권	2.2%	47.2%	

#### □ 우위 지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vs. 지방에 남은 청년

떠난 청년(비수도권→수도권)	항목	남은 청년(비수도권→비수도권)
	혼인 상태(미혼율)	미혼율 낮음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 높음	최종 학력	
	주거 점유 형태	자가 비율 높음
	거주 주택 유형	아파트 비율 높음
	1인당 주거 면적	1인당 주거 면적 넓음
생활인프라, 대중교통 만족도 높음	주거환경 만족도	이웃 관계 만족도 높음
거주 시·도 정주 의사 높음	거주 시·도 정주 의사	
	통근 시간	통근 시간 짧음
취업자 비율 높음	경제활동 상태	
	장시간 근로 경험	장시간 근로 경험 비율 낮음
연간 총소득 많음	연간 총소득	
	총부채	부채 적음
금융재산 많음	금융재산	
	주관적 건강 평가	나쁨 비율 낮음
	번아웃 경험	번아웃 경험 비율 낮음
	주관적 웰빙	삶의 행복감 높음
향후 결혼 계획 비율 높음	향후 결혼 계획	
	향후 자녀 출산 의향	향후 자녀 출산 의향 높음
	평균 초혼 연령	평균 초혼 연령 낮음
	출산 경험 여부	출산 경험 비율 높음
	첫째 자녀 출산 연령	첫째 자녀 출산 연령 낮음
	총 출생아 수	총 출생아 수 많음

#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요약)



2.	「수도권으로 떠난 정년과 남은 정년의 삶의 실 비교」전제 요약
Ι.	인구·사회
	(이동 경로별 분포) 19-34세 청년 인구의 이동 경로별 분포는 수도권→수도권(47.2%), 비수도권→비수도권(44.9%), 비수도권→수도권(5.7%), 수도권→비수도권(2.2%) 순임
	(혼인 상태) 30~34세 청년의 미혼 비율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남자 64.3%, 여자 53.4%)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남자 58.9%, 여자 43.4%)보다 높음
	(최종 학력)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68.3%)이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59.9%)보다 8.4%p 더 높음
II.	주거·교통
	(주거 점유 형태)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보증금 있는 월세(41.0%),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은 자가(61.0%)가 가장 많음
	(거주 주택 유형)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단독·연립·다세대주택(40.4%),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은 아파트(66.8%)가 가장 많음
	( <b>1인당 주거 면적)</b> 비수도권→수도권으로 <b>떠난 청년의 1인당 주거 면적은 32.4</b> $m^2$ 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b>남은 청년(36.2</b> <i>m</i> <sup>2</sup> <b>)보다 3.8</b> <i>m</i> <sup>2</sup> <b>더 작음</b>
	(주거 환경 만족도)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생활인프라, 대중교통 만족도는 높고, 이웃 관계 만족도는 낮음
	(현재 거주 시·도 정주 의사)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73.7%,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71.5%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도에 계속 살 의향이 있음
	(통근 시간)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통근 시간은 35.9분으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5.3분)보다 10.6분 더 많이 소요됨
Ш.	노동
	(경제활동 상태)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취업자 비율은 72.5%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6.4%)보다 6.1%p 더 높음
	(장시간 근로 경험)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중 취업자의 장시간 근로 경험

비율은 21.0%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12.7%)보다 8.3%p 더 높음** 

###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요약)



#### Ⅳ. 소득・부채・재산

- □ (연가 총소득)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연가 총소득은 2.743만원으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034만원)보다 709만원 더 많음
- □ (촛부채)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총부채액은 2.642만원으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909만원)보다 1.733만원 더 많음
- □ (금융재산)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첫년의 금융재산은 1.565만원으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1.271만원)보다 294만원 더 많음

#### V. 신체적·정신적 웰빙

- □ (주관전 건강 평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나 청년 중 평소 본인의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9%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1%)보다 4.8%p 더 높음
- □ (변아우(소진) 경험)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변아우 경험 비율은 42.0%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9.7%)보다 12.3%p 더 높음**
- □ (주관적 웰빙)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나 청년의 삶의 행복감은 6.76점으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92점)보다 0.16점 더 낮음

#### Ⅳ. 가족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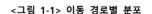
- □ (**향후 결혼 계획) 배우자가 없는 첫년 인구 중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 비율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79.2%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76.0%임
- □ (향후 자녀 출산 의행)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중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0%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6.2%)보다 4.2%p 더 낮음
- □ (평균 초흔 연령)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중 기혼자의 평균 초혼 연령은 27.5세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6.8세)보다 0.7세 더 높음
- □ (출산 경험 비율)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중 기혼 여성의 출산 경험 비율은 58.9%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8.3%)보다 9.4%p 더 낮음
- □ (촛 출생아 수) 기호 여섯의 평균 총 출생아 수는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0.84명으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1.02명)보다 0.18명 더 적음
- □ **(첫째 자녀 출산 연령)** 출산 경험 여성의 **첫째 자녀 평균 출산 연령**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27.8세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6.9세)보다 0.9세 더 높음

#### I. 인구·사회

#### 1. 이동 경로별 분포

'22년 기준 청년 인구의 **이동 경로'이전 거주자⊢현재 거주자별 분포**느 수도권→수도권(47.2%). 비수도권 $\rightarrow$ 비수도권(44.9%), 비수도권 $\rightarrow$ 수도권(5.7%), 수도권 $\rightarrow$ 비수도권(2.2%) 순임

- 이전 거주 권역과 현재 거주 권역이 같은 경위(비수도권·비수도권·수도권·수도권) 92.1%로 대부분 졸업 고교 권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
- 현재 거주 권역이 수도권(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수도권)인 청년 인구는 52.9%로 청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표 1-1> 이동 경로별 분포

현재	거주	권역	
			수.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 수도권 5.7
졸업 고교 권역	비수도권 — 비수도권	수도권 → 수도권
비수도권	44.9	47.2

0전 개지 (교 జున)	현재 거주지	비율
	체	100.0
비수도권	수도권	5.
비수도권	비수도권	44.9
동남권	수도권	1.4
동남권	동남권	12.9
수도권	비수도권	2.2
수도권	수도권	47.2

자료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 2. 혼인 상태

## '22년 **30~34세 청년 인구의 미혼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높음**

- '22년 청년 인구의 미혼 비율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77.1%)이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79.8%)보다 2.7%p 더 낮음
- 남자의 경우 25~29세는 남은 청년(90.2%), 30~34세는 떠난 청년(64.3%)의 미후 비율이 높음
- 여자의 경우 19~29세는 집단별 미혼 비율 차이가 크지 않고, **30~34세**는 떠난 청년(53.4%)이 남은 청년(43.4%)보다 미혼 비율이 높음
- 여자의 미혼 비율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떠난 청년(50.7%)이 가장 낮음



자료: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표 1-2> 혼인 상태

_													<u>(단위: %)</u>
(	기전 거주지 고교 졸업지)	현재 거주지	계	미혼		니	자			ОН	자		기혼 <sup>1)</sup>
•				NE	전체			30-3441	전체		-	30-34 <del>4</del> 1	71-
_													
	전	체	100.0	81.8	85.7	99.5	92.1	62.4	77.5	98.7	82.4	47.7	18.2
	비수도권	수도권	100.0	77.1	80.5	100.0	82.0	64.3	74.3	99.1	76.6	53.4	22.9
	비수도권	비수도권	100.0	79.8	84.0	99.2	90.2	58.9	74.6	98.5	78.6	43.4	20.2
	동남권	수도권	100.0	80.9	75.4	100.0	75.3	57.8	86.0	100.0	86.1	76.2	19.1
	동남권	동남권	100.0	80.7	84.9	99.0	90.1	57.6	76.0	98.7	78.3	47.6	19.3
	수도권	비수도권	100.0	67.5	78.2	100.0	90.7	58.3	50.7	94.7	57.7	27.2	32.5
	수도권	수도권	100.0	84.9	88.4	99.7	95.0	66.5	81.4	98.9	87.0	52.0	15.1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1) 기혼: 배우자 있음, 이혼, 별거, 사별 포함

#### 3. 최종 학력

'22년 청년 인구 중 **대학교 <u>졸업</u> 이상 비율**은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68.3%)이** 비수도권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59.9%)보다** 8.4%p 더 <del>높음</del>

- '22년 청년 인구 중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은 높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비율은 낮음
-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떠난 청년이 남은 청년보다 높음
- 고등학교 졸업 이하 비율은 25~29세는 집단별 차이가 크지 않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남은 청년이 높음
- 청년 인구 중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은 지역을 떠난 집단**(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이 **지역에 남은 집단**(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수도권)보다 높음



자료: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표 1-3> 최종 학력

(단위: %)

0	전 거주지 교교 졸업지)	현재 거주지	Л	고등학교 졸업 이하 <sup>1)</sup>	대학교 <sup>2)</sup> 재학·휴학	대학교 졸업 이상 <sup>3)</sup>
	전	체	100.0	14.3	24.1	61.6
	비수도권	수도권	100.0	11.3	20.4	68.3
	비수도권	비수도권	100.0	14.7	25.4	59.9
	동남권	수도권	100.0	13.2	18.7	68.1
	동남권	동남권	100.0	13.0	26.1	60.9
	수도권	비수도권	100.0	12.9	23.3	63.8
_	수도권	수도권	100.0	14.4	23.3	62.3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교 중퇴, 대학교 중퇴 포함

2) 대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 포함

3) 대학교 졸업 이상: 전문대학교 수료, 전문대학교 졸업, 대학교 수료, 대학교 졸업 포함



### Ⅱ. 주거·교통



#### 1. 주거 점유 형태

'22년 청년 인구의 **주거 점유 형태**는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보증금 있는 월세(41.0%)**, 비수도권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은 자기(61.0%)**가 가장 많음

- '22년 청년 인구의 주거 점유 형태는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은 높고,** 자가의 비율 낮음
-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보다 자가(27.1%)와 기타(17.3%)의 비율이 낮음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표 2-1> 주거 점유 형태

(단위: %)

이전 거주지 (고교 졸업지)	현재 거주지	Л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기타 <sup>1)</sup>
전	체	100.0	56.1	21.4	18.8	3.8
비수도권	수도권	100.0	18.7	34.0	41.0	6.3
비수도권	비수도권	100.0	61.0	16.1	18.9	4.0
동남권	수도권	100.0	17.4	22.7	50.9	9.0
동남권	동남권	100.0	64.5	16.4	15.8	3.3
수도권	비수도권	100.0	27.1	27.5	28.1	17.3
수도권	수도권	100.0	57.2	24.6	15.5	2.6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 2. 거주 주택 유형

"22년 청년 인구의 **거주 주택 유형**은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단독 연립 다시대주택.40.4%**, 비수도권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은 이파트(66.8%)**가 가장 많음

- '22년 청년 인구의 거주 주택 유형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단독·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의** 비율은 높고, 아파트 비율은 낮음
-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보다 아파트 비율은 19.4%p 더 낮고, 오피스텔 비율은 17.0%p 더 높음

<그림 2-2> 거주 주택 유형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2-2> 거주 주택 유형

(단위: %)

						(= ::: ::/
이전 거주지 (고교 졸업지)	현재 거주지	계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sup>1)</sup>
	체	100.0	29.5	62.8	6.6	1.1
비수도권	수도권	100.0	40.4	30.8	25.8	3.0
비수도권	비수도권	100.0	27.9	66.8	4.1	1.2
동남권	수도권	100.0	42.1	27.6	26.9	3.5
동남권	동남권	100.0	24.0	70.6	4.4	1.0
수도권	비수도권	100.0	36.9	50.2	8.8	4.1
수도권	수도권	100.0	29.4	63.5	6.5	0.6

<sup>1)</sup> 기타: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일세, 무상 거주 포함

기 기타: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기숙사, 향토학사, 기타 포함

#### 3. 1인당 주거 면적

'22년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1인당 주거 면적은 32.4***m*<sup>2</sup>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36.2*m*<sup>2</sup>)보다 3.8*m*<sup>2</sup> 더 작음

- '22년 청년 인구의 1인당 주거 면적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32.4m²)이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36.2m²)보다 3.8m² 더 작음
- 동남권을 떠난 청년(33.4m²)이 남은 청년(36.0m²)보다  $2.6m^2$  더 작음
- 1인당 주거 면적은 **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수도권)이 비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보다 작음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표 2-3> 1인당 주거 면적<sup>1)</sup>

(단위:  $m^2$ )

_								(= 11. /// /
	이전 거주지 (고교 졸업지)		전체	남자	여자	19~24세	25~29세	30~34세
-	전	체	34.6	35.5	33.6	30.7	35.3	38.2
	비수도권	수도권	32.4	32.5	32.3	27.0	30.8	38.1
	비수도권	비수도권	36.2	37.1	35.2	32.3	37.3	39.8
	동남권	수도권	33.4	32.3	34.3	29.4	29.4	39.9
	동남권	동남권	36.0	36.7	35.3	31.5	37.1	40.7
	수도권	비수도권	35.9	36.4	35.2	32.5	36.1	37.5
	수도권	수도권	33.2	34.1	32.4	29.5	34.2	36.7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1) 1인당 주거 면적: 현재 거주 주택의 전체 전용 면적 $(m^2)$ 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서 산출

#### 4. 주거 환경 만족도

722년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생활인프라, 대중교통 민족도는 4.02점, 4.03점으로 비수도권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각각 0.2점, 0.3점 더 높음

-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생활인프라,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높고, 이웃 관계 만족도는 낮음
- 동남권은 떠난 청년과 남은 청년의 생활인프라, 대중교통 만족도 차이가 크지 않음
- 생활인프라, 대중교통, 치안에 대한 만족도는 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수도권)이 높고, 이웃 관계 만족도는 지역에 남은 집단(비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수도권)이 높음
- 수도권의 경우 남은 청년이 떠난 청년보다 모든 항목의 주거 화경 만족도가 높음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표 2-4> 주거 환경 만족도

_					(단위: 점, 매우 🖁	불만족(1) ↔ 매우 만족(5))
(	기전 거주지 고교 졸업지)	현재 거주지	생활인프라	생활인프라 대중교통		이웃 관계
	전	체	3.89	3.83	3.96	3.57
	비수도권	수도권	4.02	4.03	3.98	3.39
	비수도권	비수도권	3.82	3.73	3.90	3.58
	동남권	수도권	3.87	3.94	3.89	3.35
	동남권	동남권	3.89	3.86	3.98	3.61
	수도권	비수도권	3.66	3.43	3.76	3.44
	수도권	수도권	3 95	3 91	4 01	3.59

#### 5. 현재 거주 시 도 정주 의사

# '22년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73.7%**는 **현재 거주 시·도에 계속 살 의향이 있음**

- ○'22년 청년 인구 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도에 계속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73.7%,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은 71.5%임
-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수도권)이 비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 보다 높고,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55.7%로 가장 낮음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고, 비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짐



자료: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표 2-5> 현재 거주 시·도 정주 의사 여부

									(단위: %)
이전 거주지	현재 거주지	   계	OLEI						OJE!
			있다	남자	여자	19~24세	25~29세	30~34세	없다
전	체	100.0	73.1	73.5	72.7	68.4	74.6	76.8	26.9
비수도권	수도권	100.0	73.7	73.8	73.6	73.6	71.9	75.6	26.3
비수도권	비수도권	100.0	71.5	71.6	71.4	60.7	75.0	80.7	28.5
동남권	수도권	100.0	69.3	72.3	66.6	67.2	70.4	69.7	30.7
동남권	동남권	100.0	73.4	72.6	74.4	65.1	78.8	77.9	26.6
수도권	비수도권	100.0	55.7	52.7	60.5	44.3	53.1	63.0	44.3
수도권	수도권	100.0	75.3	76.6	74.0	76.2	75.3	74.2	24.7
자료: 국무조정	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시	F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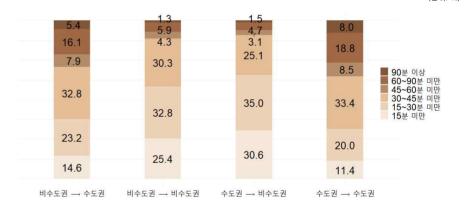
#### 6. 통근 시간

'20년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통근 시간은 35.9분으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5.3분)보다 10.6분 더 많이 소요됨** 

- 통근 시간별 비율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30~45분(32.8%), 15~30분(23.2%), 60~90분(16.1%),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은 15~30분(32.8%), 30~45분(30.3%), 15분 미만(25.4%) 순으로 많음
- **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수도권)이 비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보다 통근 시간이 길고, 특히 수도권→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35.3%는 통근 소요 시간이 45분 이상임

<그림 2-6> 통근 시간

(단위: %)



자료: 통계청 「2020년 인구총조사 표본(20%)」

<표 2-6> 통근 시간

(단위: %, 분) 이전 거주지 (출생지) 현재 거주지 평균 소요 시간 계 15분 미만 15~30분 30~45분 45~60분 60~90분 미만 미만 미만 90분 이상 32,9 전 체 100.0 18.1 26.0 31.7 6.5 12.8 4.8 비수도권 수도권 100.0 14.6 23.2 32.8 7.9 16.1 5.4 35.9 비수도권 비수도권 100.0 25.4 32.8 30.3 4.3 1.3 25.3 5.9 동남권 수도권 100.0 23.0 5.3 36.1 14.0 33.1 8.4 16.2 동남권 동남권 100.0 21.3 30.4 33.1 1.7 27.9 5.5 8.1 수도권 비수도권 100.0 25.1 1.5 30.6 35.0 3.1 4.7 23.1 수도권 수도권 100.0 114 20.0 33.4 18.8 8.0 39.8

자료: 통계청「2020년 인구총조사\_표본(20%)」



#### Ⅲ. 노동



#### 1. 경제활동 상태

'22년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취업자 비율은 72.5%**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6.4%)보다** 6.1%p 더 **높음** 

- '22년 청년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72.5%)이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6.4%)보다 6.1%p 더 높음
- 동남권을 떠난 청년(78.0%)이 남은 청년(63.5%)보다 취업자 비율이 높음
- 수도권은 떠난 청년(70.6%)과 남은 청년(70.7%)의 취업자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음
- 성별 취업자 비율 차는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에서 가장 큼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표 3-1> 경제활동 상태

									(단위: %)
이전 거주지 (고교 졸업지)	현재 거주지	계	취업자						비취업자
			71 6 1	남자	여자	19~24세	25~29세	30~34세	9171611
전	체	100.0	68.8	68.3	69.5	47.1	77.5	84.3	31.2
비수도권	수도권	100.0	72.5	74.6	70.9	47.5	82.5	81.8	27.5
비수도권	비수도권	100.0	66.4	66.0	66.8	42.6	76.6	83.6	33.6
동남권	수도권	100.0	78.0	79.6	76.5	40.8	90.5	92.4	22.0
동남권	동남권	100.0	63.5	61.6	65.7	37.8	76.6	81.2	36.5
수도권	비수도권	100.0	70.6	77.3	60.2	47.9	67.9	83.5	29.4
수도권	수도권	100.0	70.7	69.5	71.8	51.4	78.1	85.5	29.3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 2. 취업자의 장시간 근로 경험

'22년 비수도<del>권 →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del> 중 취업자의 장시간 근로 경험 비율은 21.0%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12.7%)보다 8.3%p 더 높음

- 취업자의 장시간 근로 경험 비율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21.0%)이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12.7%)보다 8.3%p 더 높음
- 동남권을 떠난 청년(28.3%)이 남은 청년(12.5%)보다 장시간 근로 경험 비율이 높음
- 장시간 근로 경험 비율은 지역을 떠난 집단(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 →수도권)이 지역에 남은 집단(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수도권)보다 높음

<그림 3-2> 취업자 중 장시간 근로 경험 '있다' 비율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3-2> 취업자의 장시간 근로 경험 여부

(단위: %)

이전 거주지 (고교 졸업지)	현재 거주지	Й	있다 <sup>1)</sup>	남자	여자	19~24세	25~29세	30~34세	없다
전	체	100.0	14.9	16.5	13.1	9.8	16.8	16.2	85.1
비수도권	수도권	100.0	21.0	26.7	16.2	11.9	22.1	24.1	79.0
비수도권	비수도권	100.0	12.7	15.2	9.6	9.6	14.1	13.2	87.3
동남권	수도권	100.0	28.3	36.8	20.3	10.5	27.6	34.5	71.7
동남권	동남권	100.0	12.5	14.5	10.4	10.0	15.3	10.9	87.5
수도권	비수도권	100.0	20.2	24.7	11.2	14.5	15.3	24.3	79.8
수도권	수도권	100.0	15.8	16.1	15.5	9.6	18.4	17.4	84.2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1) 취업자의 장시간 근로 경험(있다): '퇴근한 후부터 다음 날 출근하기까지의 시간이 11시간이 되지 않았던 적이 지난달에 최소한 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



#### Ⅳ. 소득·부채·재산



#### 1. 연간 총소득

'22년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연간 총소득은 2,743만원으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034만원)보다 709만원 더 많음

- '22년 첫년 인구의 역가 촛소득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첫년(2.743만원)이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034만원)보다 709만원 더 많음
- 동남권을 떠난 청년(2,979만원)이 남은 청년(1,964만원)보다 1.015만원 더 많음
- 첫년 인구의 연가 총소득은 **지역을 떠나 집다**(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이 지역에 남은 집단(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수도권) 보다 많음



자료: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표 4-1> 연간 총소득<sup>1)</sup>

(단위· 마워)

							(0.11.00)
이전 거주지 (고교 졸업지)	현재 거주지	전체 「	남자	여자	19~24세	25~29세	30~34세
			<u> </u>	어^r	19~244	Z5~Z9A	<u>30~34∧ </u>
	체	2,161	2,307	1,999	928	2,508	3,196
비수도권	수도권	2,743	3,086	2,465	1,301	3,035	3,542
비수도권	비수도권	2,034	2,193	1,837	822	2,382	3,098
동남권	수도권	2,979	3,627	2,397	1,290	2,895	4,226
동남권	동남권	1,964	2,029	1,890	794	2,388	2,982
수도권	비수도권	2,575	2,989	1,923	1,395	2,189	3,403
수도권	수도권	2,191	2,304	2,077	981	2,567	3,228
TID DOEL	AL Faccast #415	I II II Eller II					

#### 2. 총부채

'22년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총부채액은 2,642만원**으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909만원)보다 1,733만원 더 많음

- '22년 청년 인구의 총부채액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2.642만원)이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909만원)보다 1.733만원 더 많음
- 동남권을 떠난 청년(2.839만원)이 남은 청년(715만원)보다 2.124만원 더 많음
- 청년 인구의 연가 총부채액은 **지역을 떠나 집다**(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이 지역에 남은 집단(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수도권)보다 많음

<그림 4-2> 총부채

(단위: 만원)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표 4-2> 총부채1)

(단위: 만원)

이전 거주지 (고교 졸업지)	현재 거주지	전체	남자	여자	19~24세	25~29세	30~34세
			급사	어사	19~24/1	20~29A	3U~34AII
전	체	1,151	1,469	797	162	937	2,522
비수도권	수도권	2,642	3,224	2,170	425	2,652	4,148
비수도권	비수도권	909	1,230	512	112	706	2,063
동남권	수도권	2,839	2,291	3,325	561	2,283	4,771
동남권	동남권	715	866	542	122	727	1,475
수도권	비수도권	1,401	1,821	761	263	965	2,224
수도권	수도권	1,208	1,529	877	188	949	2,786

자료: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1) 연간 총소득: 근로 및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 포함

<sup>1)</sup> 총부채: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할부구입, 외상, 기타 부채 포함

#### 3. 금융재산

'22년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금융재산은 1.565만원으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1.271만원)보다 294만원 더 많음

- '22년 청년 인구의 **금융재산**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1.565만원)이**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1.271만원)보다 294만원 더 많음
- 첫년 인구의 금융재산은 **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수도권)이 비수도권 거주 집다(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보다 많음
- 금융재산의 **성별 차는 지역을 떠난 집단**(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이 지역에 남은 집단(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수도권)보다 큼



자료: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표 4-3> 금융재산1)

(단위: 만원)

2,435

이전 것주지 현재 거주지		전체						
(	고교 졸업지)	전세 기구시	전세	남자	여자	19~24세	25~29세	30~34세
전 체		1,414	1,424	1,403	508	1,602	2,250	
	비수도권	수도권	1,565	1,667	1,483	441	1,816	2,170
	비수도권	비수도권	1,271	1,269	1,274	434	1,428	2,095
ľ	동남권	수도권	1,292	1,379	1,216	485	1,230	1,960
	동남권	동남권	1,327	1,299	1,359	414	1,477	2,341
	수도권	비수도권	1,498	1,612	1,319	493	1,430	2,047

1.505

587

1.736

수도권 자료: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수도권

1) 금융재산: 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청약예금, 빌려준 돈, 낸 곗돈(타지 않은 금액) 등 포함

1.529

#### ♥. 신체적·정신적 웰빙



#### 1. 주관적 건강 평가

'22년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중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9%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1%)보다 4.8%p 더 높음

- ○'22년 첫년 인구 중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떠난 첫년(50.3%)이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첫년(56.7%)보다 6.4% 더 낮고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10.9%)이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1%)보다 4.8%p 더 높음
-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수도권 거주 집다**(비수도권 →수도권. 수도권→수도권)이 비수도권 거주 집다(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보다 높고 특히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가장 높음



자료: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좋음 보통 내쁨

자료: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표 5-1> 주관적 건강 평가

(단위: %)

								(E 11. 70)
이선 기우시 (고교 졸업지)	현재 거주지	계	좋음	보통	나쁨			
C 20 1/				-0	90	19~24세	25~29세	30~34세
전	체	100.0	54.6	38.4	7.0	6.4	7.1	7.7
비수도권	수도권	100.0	50.3	38.9	10.9	8.1	11.5	12.4
비수도권	비수도권	100.0	56.7	37.2	6.1	5.1	6.8	6.5
동남권	수도권	100.0	49.1	40.5	10.3	11.2	6.3	13.4
동남권	동남권	100.0	59.0	35.7	5.3	4.1	7.0	4.8
수도권	비수도권	100.0	53.2	40.8	6.0	4.6	3.7	8.0
수도권	수도권	100.0	53.3	39.3	7.4	7.5	6.9	8.0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1.552

#### 2. 번아웃(소진) 경험

'22년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번아웃 경험 비율은 42.0%**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9.7%)보다** 12.3%p 더 **높음** 

- 번아웃 경험 비율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42.0%)이 비수도권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9.7%)보다 12.3%p 더 높음
- 동남권을 떠난 청년(49.3%)이 남은 청년(29.0%)보다 번아웃 경험 비율이 높음
- 번아웃 경험 비율은 떠난 청년과 남은 청년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음
- **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수도권)은 비**수도권 거주 집단** (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보다 **번아웃 경험 비율의 성별 차가 큼**



자료: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표 5-2> 번아웃(소진) 경험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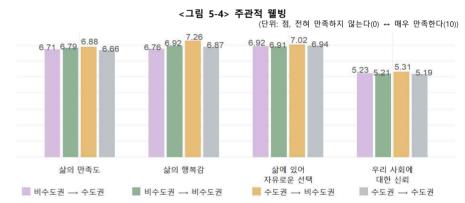
이전 거주지 (고교 졸업지)	현재 거주지	계	있다 <sup>1)</sup>	남자	여자	19~24세	25~29세	30~34세	없다
전	체	100.0	33.9	29.7	38.6	32.5	36.7	32.5	66.1
비수도권	수도권	100.0	42.0	35.7	47.1	40.4	41.5	43.6	58.0
비수도권	비수도권	100.0	29.7	26.8	33.3	27.2	33.7	28.4	70.3
동남권	수도권	100.0	49.3	44.9	53.3	38.1	52.5	54.1	50.7
동남권	동남권	100.0	29.0	25.9	32.6	23.4	34.8	29.3	71.0
수도권	비수도권	100.0	36.6	35.9	37.7	33.8	37.8	37.3	63.4
수도권	수도권	100.0	36.9	31.7	42.1	36.8	38.7	34.6	63.1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 3. 주관적 웰빙

'22년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삶의 행복감은 6.76점**으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92점)보다** 0.16점 더 **낮음** 

- ○'22년 청년 인구의 **삶의 행복감**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6.76점)이**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92점)보다** 0.16점 더 **낮음**
- 동남권을 떠난 청년이 남은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 삶의 행복감,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음
- **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수도권)이 비수도권 거주 집단 (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보다 삶의 만족도, 삶의 행복감이 낮음
-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삶의 만족도(6.88점), 삶의 행복감(7.26점)이 전체 집단 중 가장 높음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5-3> 주관적 웰빙

(단위: 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 ↔ 매우 만족한다(10) 삶의 만족도 삶의 행복감 싫에 있어 지유로운 선택 우리 시회에 대한 신뢰 이전 거주지 (고교 졸업지) 현재 거주지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여자 전 체 6.73 6.72 6.73 6.86 6.94 6.93 6.95 6.91 5.20 5.21 5.19 비수도권 수도권 6.80 5.23 6.71 6.64 6.76 6.70 6.81 6.92 7.10 6.78 5.39 5.10 비수도권 비수도권 5.21 6.79 6.75 6.84 6.92 6.85 7.02 6.91 6.90 6.91 5.18 5.24 동남권 수도권 6.58 6.54 6.60 6.52 6.41 6.61 6.85 7.04 6.68 4.89 4.87 4.90 동남권 동남권 6.74 6.63 6.87 6.89 6.74 7.07 6.83 6.82 6.84 5.41 5.38 5.44 수도권 비수도권 6.88 6.85 6.91 7.26 7.25 7.27 7.02 7.05 6.98 5.31 5.34 5.27 수도권 수도권 6.66 6.87 6.86 6.88 6 94 6.97 6.91 5.19 5.22 5.16 6.67 6 64

<sup>1)</sup> 번아웃 경험(있다): '최근 1년 동안 업무,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소진되었다고 느낀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



#### Ⅵ. 가족 형성



#### 1. 향후 결혼 계획

# '22년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중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2%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76.0%)보다 3.2%p 더 높음

- '22년 배우자가 없는 청년 인구 중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79.2%)이**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 (76.0%)보다 3.2%p 더 높음
- 동남권을 떠난 청년(83.5%)이 남은 청년(77.3%)보다 6.2%p 더 높음
-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역을 떠난 집단(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이 지역에 남은 집단(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수도권) 보다 높음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6-1> 향후 결혼 계획 여부

									(단위: %)
이전 거주지	현재 거주지	   계 [	01=11)						OLE I
			있다 <sup>1)</sup>	남자	여자	19~24세	25~29세	30~34세	없다
전	체	100.0	75.1	79.8	69.3	73.7	76.2	75.9	24.9
비수도권	수도권	100.0	79.2	83.1	75.8	76.5	79.4	82.4	20.8
비수도권	비수도권	100.0	76.0	79.6	71.1	76.3	76.0	75.4	24.0
동남권	수도권	100.0	83.5	87.4	80.3	86.5	86.8	76.6	16.5
동남권	동남권	100.0	77.3	81.0	72.5	79.5	76.6	73.2	22.7
수도권	비수도권	100.0	78.8	83.9	66.6	79.7	79.9	76.8	21.2
수도권	수도권	100.0	73.6	79.4	67.3	70.8	75.8	75.4	26.4

자료: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 2. 향후 자녀 출산 의향

## ''22년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중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0%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6.2%)보다 4.2%p 더 낮음

- '22년 청년 인구 중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62.0%)이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6.2%)보다
   4.2%p 더 낮음
- 동남권을 떠난 청년(64.3%)이 남은 청년(68.9%)보다 4.6%p 더 낮음
-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 →수도권, 수도권→수도권)이 비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보다 낮음



자료: 국무조정실「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 <표 6-2> 향후 자녀 출산 의향 여부

(단위: %)

이전 거주지 (고교 졸업지)	현재 거주지	계	있다 <sup>1)</sup>						 없다
(LL 26-1)			ᄴᄓ	남자	여자	19~24세	25~29세	30~34세	
전	체	100.0	63.4	70.6	55.3	62.5	66.1	61.3	36.6
비수도권	수도권	100.0	62.0	72.6	53.4	65.2	66.9	54.8	38.0
비수도권	비수도권	100.0	66.2	71.8	59.3	67.3	67.9	63.3	33.8
동남권	수도권	100.0	64.3	73.3	56.2	78.2	69.3	49.9	35.7
동남권	동남권	100.0	68.9	74.9	62.1	71.5	70.5	63.7	31.1
수도권	비수도권	100.0	66.6	72.2	58.0	68.2	77.2	59.4	33.4
수도권	수도권	100.0	60.6	69.0	52.1	57.3	64.1	60.4	39.4

<sup>1)</sup> 향후 결혼 계획(있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 중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sup>1)</sup> 향후 자녀 출산 의향(있다): '향후에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 또는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가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3. 평균 초혼 연령

'20년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중 기혼자의 평균 초혼 연령은 27.5세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6.8세)보다 0.7세 더 높음

- '20년 기준 기혼 청년의 평균 초흔 연령은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27.5세)이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6.8세)보다 0.7세 더 높음
- 동남권을 떠난 청년(27.7세)이 남은 청년(27.1세)보다 0.6세 더 높음
- 기후 첫년의 평균 초후 연령은 **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 수도권)이 비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보다 높음

<그림 6-3> 기혼 청년의 평균 초혼 연령

(단위: 세)



자료: 통계청 「2021년 인구총조사 표본(20%)」

<표 6-3> 기혼 청년의 평균 초혼 연령

(단위: 세)

이전 거주지 (출생지) 현재 거주지		기혼 청년 전체	성별				
(출생지)	전세 기구시	전체	남자	여자			
<u>전</u> 체		27.1	27.8	26.6			
비수도권	수도권	27.5	28.3	27.0			
비수도권	비수도권	26.8	27.6	26.3			
동남권	수도권	27.7	28.3	27.3			
동남권	동남권	27.1	27.8	26.6			
수도권	비수도권	26.6	27.6	26.1			
수도권	수도권	27.3	28.0	26.8			

자료: 통계청 「2020년 인구총조사 표본(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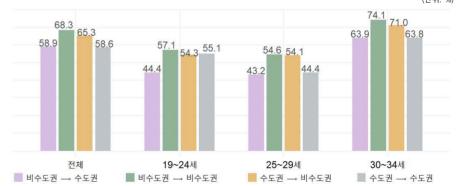
#### 4. 출산 경험

'20년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중 기혼인 여성의 출산 경험 비율은 58.9%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8.3%)보다 9.4% 더 낮음

- '20년 기준 기혼 여성의 출산 경험 비율은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58.9%)이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68.3%)보다 9.4%p 더 낮음
- 모든 연령대에서 떠난 청년이 남은 청년보다 10%p 이상 낮음
- 동남권을 떠난 청년(55.7%)이 남은 청년(66.7%)보다 11.0%p 더 낮음
- 기후 여성의 출산 경험 비율은 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 수도권)이 비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보다 낮음

<그림 6-4> 기혼 여성 중 출산 경험 '있다'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 「2021년 인구총조사 표본(20%)

#### <표 6-4> 기혼 여성의 출산 경험 여부

(단위: %)

시점 기조기							
이전 거주지 (출생지)	현재 거주지	계	있다				없다
(20/1/			ᄊᄓ	19~24세	25~29세	30~34세	
	체	100.0	63.1	55.0	49.4	68.5	36.9
비수도권	수도권	100.0	58.9	44.4	43.2	63.9	41.1
비수도권	비수도권	100.0	68.3	57.1	54.6	74.1	31.7
동남권	수도권	100.0	55.7	42.3	39.9	60.3	44.3
동남권	동남권	100.0	66.7	53.6	52.5	72.2	33.3
수도권	비수도권	100.0	65.3	54.3	54.1	71.0	34.7
수도권	수도권	100.0	58.6	55.1	44.4	63.8	41.4

자료: 통계청 「2020년 인구총조사 표본(20%)」

#### 5. 총 출생아 수

'20년 기혼 여성의 총 출생아 수별 비율은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1명(39.1%),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은 0명(41.1%)이 가장 많음

- '20년 기준 **기혼 여성의 총 출생아 수**는 비수도권→**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0명(41.1%)**, 1명(36.8%), 2명(19.6%),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은 **1명(39.1%)**, 0명(31.7%), 2명(25.3%) 순으로 많음
- 평균 총 출생아 수는 떠난 청년(0.84명)이 남은 청년(1.02명)보다 0.18명 더 적음
- 기혼 여성의 평균 총 출생아 수는 **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수도권, 수도권 →수도권)이 비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보다 점음
- 수도권에 남은 청년(0.82명)이 가장 적고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1.02명)이 가장 많음



자료: 통계청 「2021년 인구총조사 표본(20%)」

<표 6-5> 기혼 여성의 총 출생아 수

							(단위: %, 명)
이전 거주지 (출생지)	원제 기조기	ᆒ					평균
(출생지)	연세 기구시	계	0명	1명	2명	3명 이상	출생아 수
전 체		100.0	36.9	38.1	21.9	3.1	0.92
비수도권	수도권	100.0	41.1	36.8	19.6	2.5	0.84
비수도권	비수도권	100.0	31.7	39.1	25.3	3.8	1.02
동남권	수도권	100.0	44.3	36.5	17.4	1.9	0.77
동남권	동남권	100.0	33.3	39.8	24.0	2.8	0.97
수도권	비수도권	100.0	34.7	37.7	23.5	4.2	0.97
수도권	수도권	100.0	41.4	37.5	18.7	2.4	0.82

자료: 통계청 「2020년 인구총조사\_표본(20%)」

#### 6. 첫째 자녀 출산 연령

'20년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중 출신을 경험한 여성의 첫째 지녀 평균 출산 연령은 27.8세로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6.9세)보다 0.9세 더 높음

- '20년 기준 **출산 경험 여성의 첫째 자녀 평균 출산 연령**은 비수도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27.8세)이** 비수도권→비수도권에 남은 청년(26.9세)보다 0.9세 더 높음
- 출산 경험 여성의 첫째 자녀 평균 출산 연령은 **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 →수도권, 수도권→수도권)이 비수도권 거주 집단(비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보다 높음

<그림 6-6> 출산 경험 여성의 첫째 자녀 평균 출산 연령

(단위: 세)

수도권 → 수도권

□ 비수도권 → 수도권 □ 수도권 → 비수도권

자료: 통계청 「2021년 인구총조사,표본(20%)」

<표 6-6> 출산 경험 여성의 첫째 자녀 평균 출산 연령

비수도권 → 비수도권

				(단위: 세)
	이전 거주지 (출생지)	현재 거주지	첫째 자녀 평균 출산 연령	
	전	체		27.2
_	비수도권	수도권		27.8
	비수도권	비수도권		26.9
	동남권	수도권		28.1
	동남권	동남권		27.3
_	수도권	비수도권		26.7
_	수도권	수도권		27.5

자료: 통계청 「2020년 인구총조사\_표본(20%)」